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SECRETS OF SAM & SAM

가제 : 샘과 샘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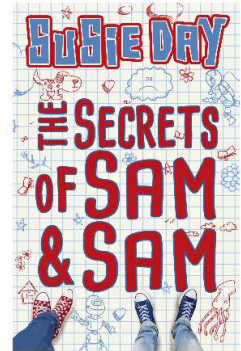
저자 : Susie Day

출판사: Red Fox Books

발행일: 2015년 7월 30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한 집에 사는 두 엄마와 쌍둥이, 개성 넘치는 네 사람의 재미있는 일상과 두 아이의 성장기

이란성 쌍둥이인 샘과 새미. 이제 열한 살이 된 두 사람은 두 명의 엄마 K, 젠과 함께 살고 있다. 성격 좋고 활발한 샘은 치즈 샌드위치를 좋아하고 만화 그리기가 취미인 소년이다. 옆집 친구 피와 연필로 공동 제작한 최근작 ‘캡틴 샘어메이징의 계속되는 모험’은 오직 샘이 허락한 몇 사람만 볼 수 있는 걸작으로, 못 히어로들과 달리 슈퍼파워는 없지만 우주와 포켓 로켓을 섭렵하며 은하계 오징어들과 맞서 싸우는 캡틴 샘어메이징의 용맹한 전투를 그린 만화다. ‘포인트’라는 조수를 거느린 캡틴 샘어메이징의 얼굴은 당연히 샘과 아주 닮았다. 샘은 언젠가 자신의 작품이 영화로도 만들어질 거라 확신하면서, 매일 창작 활동에 여념이 없다.

쌍둥이 여동생인 새미는 샘과 영 판판인 소녀다. 까칠하고 불만이 많은 새미는 11년 짧은 인생 동안 이름도 벌써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른다. 사마라, 사만다, 제니퍼 조를 거쳐 겨우 새미에 정착했다.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샘과 자신을 비슷한 존재로 보는 시선도 싫고, 어릴 때는 그냥 받아들이던 똑같은 옷, 머리모양도 싫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일요일, 네 식구의 전담 미용사인 엄마 젠이 덩수룩해진 샘과 새미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다가왔을 때도, 샘과 달리 새미는 펄쩍 뛰며 거부했다. ‘내 머리카락은 내 머리에 달려 있으니 남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고, 머리카락은 ‘인권’이 있다고 반박하며 가위는 아예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한다. 이란성 쌍둥이가 다 그렇듯이, 사실 두 사람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 걸린 두 사람의 어린 시절 사진들은 온통 똑같은 청바지와 줄무늬 티셔츠를 걸친 똑같은 주근깨투성이 얼굴에 귀 옆에서 꼬불대는 곱슬머리를 가진 똑같은 두 아이의 모습으로 가득하다. 엄마 젠과 엄마 K는 강아지 털은 제멋대로 녹색으로 염색시켜버리고 자기 머리카락은 손도 못 대게 하는 새미의 까칠함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한 명은 소년으로, 한 명은 소녀로 성장하며 각기 다른 고민을 안게 된 쌍둥이의 남모를 비밀

수시로 '전문가 냄새 푼푼 나는 자상한 음성'을 장착하고 두 아이를 비롯해 누구든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엄마 켄. 샘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자상한 음성은 미용사이자 집안의 심리학자인 엄마 켄의 필살 무기다. 엄마 K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고민을 들어주지는 않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답게 늘 진지하게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샘과 새미 두 쌍둥이를 키우는 일을 책으로 써서 발표하기도 했던 엄마 K는 두 아이에 관한 두 번째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고, 새미는 K에게 멍청한 샘은 빼고 자신만 단독으로 등장하는 책을 써 달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제각각 개성 만점인 네 명의 가족은 한 집에서 가끔 다투면서도 행복하게 살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된다. 선머슴처럼 지내던 새미는 여자 친구들이 남학생들이며 옷, 화장에 갑자기 관심을 많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나 낮설어하고, 샘은 자신을 모델로 그린 캡틴 샘어메이징과 어울리지 않게 높은 곳을 너무 무서워해서 학교 생활이 점점 힘들어진다. 결국 각자 자신만의 비밀을 갖게 된 샘과 새미. 어느 쪽이 먼저 두 엄마에게 발각되고 말까? 성적 소수자인 두 엄마와 사는 이란성 쌍둥이가 소년으로, 소녀로 각각 성장해가면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그린 성장 소설이다.

<저자 소개>

수지 데이(Susie Day)는 여행 가이드, 베이비시터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쳐 작가가 되었다. 2004년 발표한 데뷔작 <<Whump!>>는 'BBC 재능 있는 어린이소설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현재 옥스포드에 살면서 소설을 쓰고 있다.

제목 : SOME OF THE PARTS

가제 : 그의 일부

저자 : Hannah Barnaby

출판사: Knopf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6년 2월 1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사고로 오빠를 잃고 힘겹게 일상을 버티는 소녀, 오빠의 사고와 죽음에 관한 진실과 마주하다

오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톨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 왔다. 씩씩하게 웃고, 괜찮은 척 하면서 가까운 친구들도,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안심하도록 속이는 것이 톨리가 세운 전략이었다. 하지만 사실 톨리는 오빠는 사라지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 일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톨리는 오빠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지 못하고 사고 전과 후 그 중간 어느 즈음에 발이 묶인 사람처럼 방황하며 살고 있다.

사고가 난지 이미 4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사고 이전 자신의 본 모습을 몽땅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톨리에게 변화가 생긴 건 분명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시간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은 진정하지 못하고 설새 없이 두근거렸다.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상처로 다가오고 무엇도 머릿속에 분명하게 남지 않았다. 톨리는 눈먼 사람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 모든 물건의 위치를 바꿔놓은 것처럼, 혼란과 좌절,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만을 느낀다. 갑자기 지나치게 친절해진 주변 사람들도 세상을 향한 톨리의 거부감을 키웠다. 슈퍼마켓이며 시내 한복판이며 톨리를 보면 “이 불쌍한 것.”하며 끌어안아주는 사람들, 사고 때문에 한참 나가지 못했던 학교로 다시 돌아갔을 때 복도에서 흥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어주던 친구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아이들이 자신을 어색해하고, 피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죽은 오빠를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겨우 다시 사귀 친구 멜과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척 지내고 있지만, 톨리엔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런 톨리에게 오빠의 사고와 죽음에 관한 생각지도 못한 진실이 드러난다.

어느 날 집 편지함에서 발견한 이상한 편지 한 통. 오빠 앞으로 온 그 편지엔 분명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발신자는 ‘라이프 초이스’라는 곳이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보낸 편지라고만 생각한 톨리는 온갖 광고 편지들 사이에서 그 편지를 꺼내 따로 보관해둔다. 오빠 앞으로 온 편지를 보고 가슴 아파할 부모님 대신 오빠 앞으로 온 우편물을 따로 챙기는 건 사고 이후 톨리가 남몰래 해오던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편지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었다.

오빠의 몸 일부가 다른 사람의 몸이 되었다면... 그 흔적을 찾아가는 소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

웬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톨리. 봉투 안에는 두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한 장을 열어보니, 손으로 정성껏 쓴 글씨와 ‘가족 분들께’라는 첫 문장이 보였다.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폐를 이식 받지 못했다면 벌써 이 세상을 떠나고 없었을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오로지 아드님 덕분이며, 그 의미 있는 선택이 여러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감사 편지였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편지를 연 톨리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접한다. ‘라이프 초이스’라는 회사가 쓴 편지로, 아드님의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심장, 간, 폐, 신장, 각막을 기증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그 장기들을 받을 수여자를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부모님이 오빠의 몸을 누군가에게 줬버렸다는 배신감과 함께 구역질이 밀려 올라오고, 톨리는 서둘러 오빠의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던 오빠의 운전면허증. 두려운 마음을 누르며 면허증을 꺼내 뒷면을 보니, 선명한 글씨가 딱 하니 나타났다. ‘장기 기증자.’ 장기 기증은 다 오빠가 원했던 일이었다.

오빠는 영원히 사라지고 없지만, 몸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몸 속에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톨리는 수여자들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한다.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을 아직 떠나 보낼 준비가 안 된 소녀, 오빠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은 그녀의 가슴 아픈 여정이 시작된다.

<저자 소개>

하나 바너비(Hannah Barnaby)는 시몬스 칼리지에서 아동 문학을 공부하고 버몬트 칼리지에서 글쓰기로 예술석사를 취득했다. 데뷔작인 《Wonder Show》는 ‘윌리엄 C. 모리스 상(William C. Morris award)’ 후보에 올랐다. 버지니아 주에 살면서 아동 도서 편집, 도서 판매 업무와 함께 글쓰기 교사로 활동 중이다.